

모닥불

육중한 트럭이 다리를 울리며 지나간다.

지난밤부터 내리는 비에 부쩍 붙은 개천물에 어린 도랑가에 놓은 모닥불이 가늘게 떨린다. 모닥불을 끼고 육손이 할아버지는 주워다 모은 누더기 더미에 기대어, 잠이 든 모양이다.

봄새 늘씬하게 키가 자란 애꾸는, 미군 부대 근처 쓰레기 틈에서 주워 온 통조림에 붙은 찌꺼기를 긁어 모아 불에 얹고 있었다. 주린 배에 그 냄새가 퍽이나 회를 동케 한다.

개천 건너 이쪽에서 꼬마와 충식이는 웅송거리고 앉아 냇을 잃고 애꾸를 보고 있다.

애꾸는 혼자 부산하다. 불 위에 얹힌 우그러진 군대용 반합(飯盒)을 젖다가 가물가물하는 불에 탈 만한 것을 갖다 던지곤 한다. 그럴 적마다 새로운 불꽃이 확 피어 시키면 그 얼굴이 활 달았다.

깊은 어둠이 얼굴 반면을 덮어 폭 꺼진 멀은 쪽 눈만이 떠 보이는 애꾸는 여느 때보다 더욱 병신스럽다.

들로 쌓아 올린 독 벽에 육손이 할아버지와 애꾸의 커다란 그림자가 흔들린다.

모닥불을 지고 앉은 육손이 할아버지는 그 자체가 불그레하게 선
을 두른 그림자같이 흥흥하게 시켜땀다.

반합을 젖는 애꾸의 손이 솔뚜껑만큼이나 커 보인다.

꼬마는 얼른 눈을 감는다.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나 무서웠다. 습
기가 말라붙은 창자 속까지 스미고 퀴퀴한 누더기 냄새 시궁창 냄새
가 비위를 거슬린다.

밭은기침이 치밀어 꼬마는 가슴을 누르고 꼴꼴거렸다.

꼬마의 나이는 아무도 모른다. 키로 보아서는 너댓 살밖에 되어 보
이지 않았으나 그 나이로서는 눈치가 몹시 빠르다. 말수가 사뭇 없는
대신 커다란 눈의 표정이 풍부하였다.

꼬마는 충식이 꿈무늬에 따라다니며, 그렁저렁 살아왔다.

꼬마가 충식을 알게 된 것은, 역시 이러한 날 밤 모닥불 옆에서
였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그쳤다간 지나가는 밤이었다.

썩은 가마니 위에 누워서 종종 가슴을 으스스하는 듯한 밧은기침을 하
며 꼬마의 언니가 가물가물하는 모닥불 옆에서 췌근거리고 있는 둘
레를 다리 밑에 모인 부랑인(浮浪人)들이 싸돌고 앉아 있었다.

모두들 말이 없고 엄숙한 얼굴들이었다.

어린 꼬마는 어리둥절하고 그 옆에 오그려 앉아 뼈에 가죽만 입힌
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얼굴이 찌그러졌다.

사람들의 기색이 수상하였다.

오싹오싹 한기가 드는 밤이었건만 언니는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
풀어헤친 가슴을 뼈만 남은 손으로 쥐어뜯었다. 일본 군인의 방한모
를 쓴 어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자꾸만 그 가슴을 여며 주었다.

너털너털한 커다란 학생복으로 손등을 덮은 더러운 거지 소년 하
나가 꼬마 손에 반쪽이 썩은 사과를 쥐어 주었다.

이 소년이 충식이었던 것이다.

꼬마는 그날 저녁 충식이에게 안겨 잠이 들었다. 이튿날 늦게 눈을 떠 보니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죽은 것이라고 충식이가 알려주었다. 그 때부터 꼬마는 죽는 것이란 발은기침을 몹시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접어 넣었다.

꼬마는 그 전에도 ‘죽음’이란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언니가 살아 있어 같이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언니는 커다란 눈을 떨어뜨리며 “아버지허구 엄마만 폭격에 죽지 않았더라면…….” 하곤 울었다.

꼬마는 엄마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거리에는 고운 옷을 입은, 예쁜 아주머니들이 술하게 지나다닌다. 언니는 울엄마는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예쁘고 얌전했다고 장담을 했다.

어느 날 광복동 거리를 지나는 아리잠직한 아주머니를 보고 언니가 숨이 차게 따라갔다. 폭격에 팔 하나를 잃은 언니의 모습이 가엾었던지 그 아주머니는 그리 보채지도 않았건만 따라가는 거지 아이에게 상냥스럽게 돈을 쥐어 주었다.

“엄마야!”

언니가 눈물이 핑 돈 눈으로 그 아주머니를 좇으며 속삭였다.

그 때부터 꼬마는 차차 엄마를 상기하게 되었다.

언젠가 몹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었을 때가 생각났다. 꼬마 머리맡을 언제나 부드럽고 애정에 찬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이 눈썹을 모으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역시 기억에 박혀 있지 못했다.

꼬마는 지금도 버선 같은 것을 발에 꿰 때면 ‘신는다’고는 않고 ‘쑥쑥’이라고 한다. 아렴풋한 기억 속에서 어느 아리따고 단정한 여인이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자기 발에 조고만 버선을 신기며 ‘쑥 쑥’ 하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토실토실 살이 찢 손으로 눈코 할 것 없이 마구 두들기며 책책거려 좋아하던 그 얼굴을 어찌 잊었던고——

언니가 ‘엄마 엄마’ 하고 울며 엄마를 그럴 때 꼬마는 옆에서 어리둥절하고 어린 기억 속에서 이것저것을 더듬어 주우며 엄마를 생각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의 조각에 지나지 않아 정말 있었던 일인지 꼬마가 그려 낸 가공(架空)의 그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언니는 지나가는 곱살스러운 여인이 있으면 곧잘 ‘엄마’ 같다고 하였다.

언니가 ‘엄마’ 같다고 한 여인들 중에는 코가 오뎅한 사람도 있었고, 평퍼짐한 사람도 있었다. ‘엄마’는 보글보글 살이 찼다가, 갑작스레 깡마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엄마’의 영상(映像)은 꼬마 머리 속에서 언제까지나 아물거리기만 했다.

충식이는 언니보다 한두 살 위인 듯한 거지 소년이다. 그는 애초부터 꼬마가 6·25 사변 때문에 굴러떨어지게 된 구렁창 계급에서 생을 받은 아이였다.

웬 까닭인지 꼬마를 제 몸보다 아꼈으나 그 사랑에는 얼룩이 심했다. 심사가 틀릴 때면 썩 개고기 노릇을 하였으나 꼬마가 심란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별소리를 다하며 웃기려 들었고, 그를 먹이기 위하여 가게 앞에서 도둑질까지 하였다.

그런 충식이를 꼬마는 의지하고 살아는 왔지만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날이 밝으면 충식이는 깡통을 들고 꼬마를 데리고 거리로 나간다.

곱게 차린 여인들 중에서 마음이 약해 보이는 이를 물색해 내고 치근치근 따라간다. 고운 옷에 까마귀 발로 때를 묻혀서 못 견디게 군다.

한 번은 어떤 처녀가 결삼스럽게 뿌리치는 데 심사가 났던지 치마를 속치마째 훌쩍 들어 뒤집어 놓았다. 효과(效果)는 충식이의 예상 밖이었다. 그는 이 전술을 아무에게나 쓰게 되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멧쟁이 여학생을 못살게 굴면서 잡고 늘어

지는데 지나가던 신사가 주먹으로 위협을 하며 쫓으려 하였다. 겁을 먹고 달아난 꼬마가 양품점 옆 실골목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총식이는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아

“아야 아야…….”

머리를 열싸 안고 죽는 시늉을 하였다. 그 바람에 멧쟁이 여학생이 놀라선지 귀찮아선지 십 환을 던져 주고, 콩무니를 뺐다.

짓밟아도 차 던져도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잡초와도 같았다.

이렇게 빌어 오는 것으로 목숨을 이어는 가나마 꼬마에게는 총식에게 대한 역겨움이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총식의 정성껏 하는 고시련에도 불구하고 꼬마는 점점 시들어 갔다. 발은기침이 가슴을 터뜨리려는 것이었다.

사실 다리 밑 거주자에겐 구질구질한 비 오는 날이 쇠붙이 연장이 상으로 목숨을 저민다.

해토될 무렵부터 잦아진 비가 꼬마 얼굴에 노란 진을 앉혔다.

식욕이 없으면서 허기증이 심해 갔다.

애꾸가 끓이고 있는 괴상한 잡탕 냄새가 오늘따라 빌어 온 것이 없어 채우지 못한 창자를 거슬린다.

꼬마는 감았던 눈을 떠 본다.

건너편에서는, 잠이 든 줄 알았던 육손이 할아버지와 애꾸가 후후 입으로 김을 불어 가며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다. 돌아앉아 있는 애꾸가 돌둑에 비낀, 꼭 같은 자세의 엄청난 그림자와 마주앉아 손갈을 썼다. 그러자 그림자도 역시 ‘라켓’만이나 한 손갈을 오르내렸다.

모닥불은 여전이 가물가물 타며 애꾸와 할아버지가 주워다 모아 놓은 빈병 나무라기 위에 어른어른 불빛을 던진다.

쳐다보이는 저쪽 신작로 위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에 젖은 아스팔트 길을 쓸며 달렸다. 꼬마는 불 가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무서웠고 달리는 차가 자꾸 덤벼드는 것 같아 무서웠다.

까닭 모르는 공포가 움켜잡는 것 같아 꼬마는 떨면서 충식이 옆에 달라붙는다. 충식이는 말없이 뺨을 부비며, 그의 가는 목을 쓸어 안았다.

퀴퀴한 누더기 냄새, 코리한 때 냄새에 현기가 난다. 까무러쳐 가는 꼬마 머리를, 언니가 죽은 후 애써 생각하려 들지 않았던 엄마가 스쳤다. 엄마——기억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으나, 하여튼 아리뭇하고 상냥한 엄마가 그 향긋한 가슴에 알 수 없는 공포에 웅조려진 꼬마를 정답게 껴안아 주는 것 같은 노근한 만족감이 그를 차지해 갔다.

꼬마는 그 노근한 만족감에 잠겨 어느덧 언니가 그러했듯 야윈 가슴을 자꾸만 헤치고 그 헤친 가슴을 뼈만 남은 손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1953. 5. 31.)